

# 네 탓 싸움에...순천만 명물 스카이큐브 '흉물될 판'

**운영사 에코트랜스**  
주차장 이전·통합 발권 등 미이행  
적자 쌓여 협약 해지 통보  
미래 수익 등 1367억 보상 요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순천시**  
주차장 이전 문제 강제사항이나  
사업 철수 명분 찾으려 억지 주장  
허석시장 회견 "대기업 갑질 횡포"  
국감·세무감사 요구 등 적극 대응

## 종점~습지 1.2km 떨어져 불편 호소도...시민들 "상생 모색해야"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을 오가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스카이큐브' (Sky Cube·국내 최초 소형 무인궤도열차)가 순천시와 운영사의 갈등으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

이용객 급감으로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스카이큐브 운영사가 순천시의 비협조적 태도·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고액의 보상금과 함께 운영 포기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운영사는 순천만 습지·국가정원 입장료에 스카이큐브 요금까지 포함해달라는 주장을, 순천시는 입장료 통합발권은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들의 갈등을 바라보는 방문객과 순천 시민은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운영사가 주장하는 '통합발권'으로 현재 적자상태가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입장료 인상에 따른 스카이큐브 미이용객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통합발권보다는 기존 '일반 발권'과 스카이큐브를 묶은 '할인형 통합권' 등 두가지 형태로 발권하고, 이용객 유인책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실제 스카이큐브를 이용한 탐방객 중 상당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종점이 순천만습지에서 1.2km나 떨어져 있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국가정원에서 탐승한 어린이나 노인 등이 포함된 가족단위 탐방객들은 스카이큐브에서 내린 뒤, 30여분을 더 걸어야만 순천만 습지에 도착할 수 있는 탓에 왕복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최근 아들(6세)·아내와 함께 스카이큐브를 탔다는 박성모(47·광주시 북구)씨는 "종점에서 내려 30분을 걸어 순천만 습지에 도착하니 아이는 이미 지쳐 있었다"며 "결국 습지탐방은커녕 혼자 큐브를 타고 국가정원으로 되돌아와 차를 몰고 가족을 데리러 가야 했다. 다시는 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영사 한 관계자는 "순천시가 순천만습지까지 노선을 이어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시민단체 반발 등을 핑계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십차례 업무협조를 요청해도 무시하다가, 보상을 요구했더니 갑자기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등 본질을 벗어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순천에 공익적 투자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18일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에코트랜스 등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에 설치된 스카이큐브는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와 순천시가 민간투자협약을 맺



순천만의 명물 '스카이큐브' (무인궤도열차·오른쪽 위)가 운영사와 순천시 간 갈등으로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스카이큐브 탑승 장소인 순천만 국가정원 내 정무원역.

고, 지난 2014년부터 국가정원-순천만문학관 4.62km 구간을 운행중이다.

포스코는 2011년 시의 투자유치 요청을 받아들여 670억원을 들여 스카이큐브를 설치했으며, 30년 운행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스카이큐브는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친환경 운송수단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환경중심 순천만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연간 탑승객은 당초 예상치인 100만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30만명에 그치고 있다. 운영사는 첫해 55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200억원 이

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운영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약에 따라 ▲순천만습지 주차장 이전과 함께 스카이 큐브 노선 연장 ▲통합 발권 ▲적자 발생 시 투자 위험분담금 부담 등을 순천시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운영사는 결국 지난 2월19일 순천시에 투자비용 분담금과 미래 발생할 보상 수익(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 이행 협약 해지도 통보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업체가 사업 철수

명분을 찾기 위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협약할 당시 통합정수와 주차장 문제 등을 약속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시민단체의 대기업 특혜 철폐 요구가 더해지면서 삭제됐다"며 "주차장 이전 문제도 강제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석 순천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운영 중지는 거대기업의 갑질 횡포"라면서 "포스코의 횡포에 국정감사 요구, 세무감사 요구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부수고 상습 절도 카자흐스탄인 구속

광주광산경찰은 18일 광산구 일대 인형뽑기방에서 상습적으로 공수로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인형뽑기방 5곳을 돌며 공수로 지폐교환기 부수는 수법으로 3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해 3월 광범비자로 입국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지내온 A씨는 스포츠도토에 빠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버닝썬 게이트' 유착 의혹 총경 입건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靑 근무때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골프"

박병 서리(본명 이승현·29) 등 유명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도(50·경찰대 9기) 총경이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윤 총경은 청와대 재직기간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와 골프, 식사를 같이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총경은 서리 등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총경 등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제의 카톡방에 '경찰총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시간대를 근거로

112 신고, 단속내역 등을 살펴 윤 총경을 지목하고 그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서리와 유리홀딩스 유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공동 설립한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관해 은밀히 알아보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세한 내용을 개고 있다. 몽키뮤지엄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처럼 영업했다가 문제가 돼 경쟁 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이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했던 강남경찰서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해 사건에 관

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이 유 대표와 알게 된 것은 2016년 초 무렵이다. 윤 총경은 사업가인 지인을 통해 유 대표를 소개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윤 총경이 유 대표와 골프를 친 것은 2017~2018년 무렵이다. 식사와 골프를 합해 만난 횟수는 10번을 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6년 승진한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한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이다.

경찰은 또 윤 총경이 서리와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윤 총경 등 총 4명의 경찰서를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해 사건에 관

## 마약·음주운전 범죄자

### 보호관찰 구형 강화

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실형 구형 때(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부과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국가문화재 백도 해상 불법 낚시배 2척 적발

섬 전체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백도'에서 선상 낚시를 즐긴 낚시꾼 24명과 이들을 실어 나른 낚시배 선장 2명이 허가 없이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1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선장 A(63)씨는 9.77t급 낚시배 H호에 승객 18명을 태우고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수시 백도 주변 해상에 들어가는 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께 선장 B(62)씨도 낚시어선 S호(9.77t급)에 승객 11명을 태우고 삼백도 노적섬 동쪽 162m 앞 해상까지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락(열기) 철을 맞아 백도에 무단 상륙해 낚시꾼 1명당 10마리 상당의 불법락을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낚시꾼들은 "백도가 문화재 지역인지 몰랐으며 선장이 이곳으로 데리고 와 낚시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 백도는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됐다.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동·식물 및 수산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됐으며, 무단으로 섬에 침입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 주운 가방 주인 찾아줘 '훈훈'

○...고흥의 한 전통 식당에서 장을 보던 중 낚시배가 떨어뜨려 놓았던 가방의 주인을 끝까지 찾아 줬던 훈훈한 화제.

○...18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50대로 보이는 A씨는 지난 3일 오후 고흥군의 한 시장내 이면도로에서 주운 가방을 인근 상인에게 "손님이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은 듯 5분 뒤 가방을 다시 찾아 파출소로 들고 가 경찰들에게 건넨 뒤 "꼭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가방을 열어본 경찰은 틀리가 들어있는 점을 토대로 인근 치과 환자를 수소문해 가방 주인을 찾아 돌려줬는데, A씨는 "가방 주인이 애대개 찾고 있을 것 같아 불일을 보고 파출소에 들렀다"며 웃음. /고흥=주각중 기자 gjuj@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터에서 보세요

#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분양

##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